

## 취·양수장 개선사업, 관계부처 협력으로 속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한다

- 기후부 수자원정책관·농식품부 식량정책관, 취·양수장 실무협의체 정례회의 주재
- 통합 개선·인허가 신속 지원 등으로 사업 속도 제고 및 비용 효율화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 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 (기후부) 2026년 예산 470억원, 이월예산 170억원, (농식품부) 2026년 예산 246억원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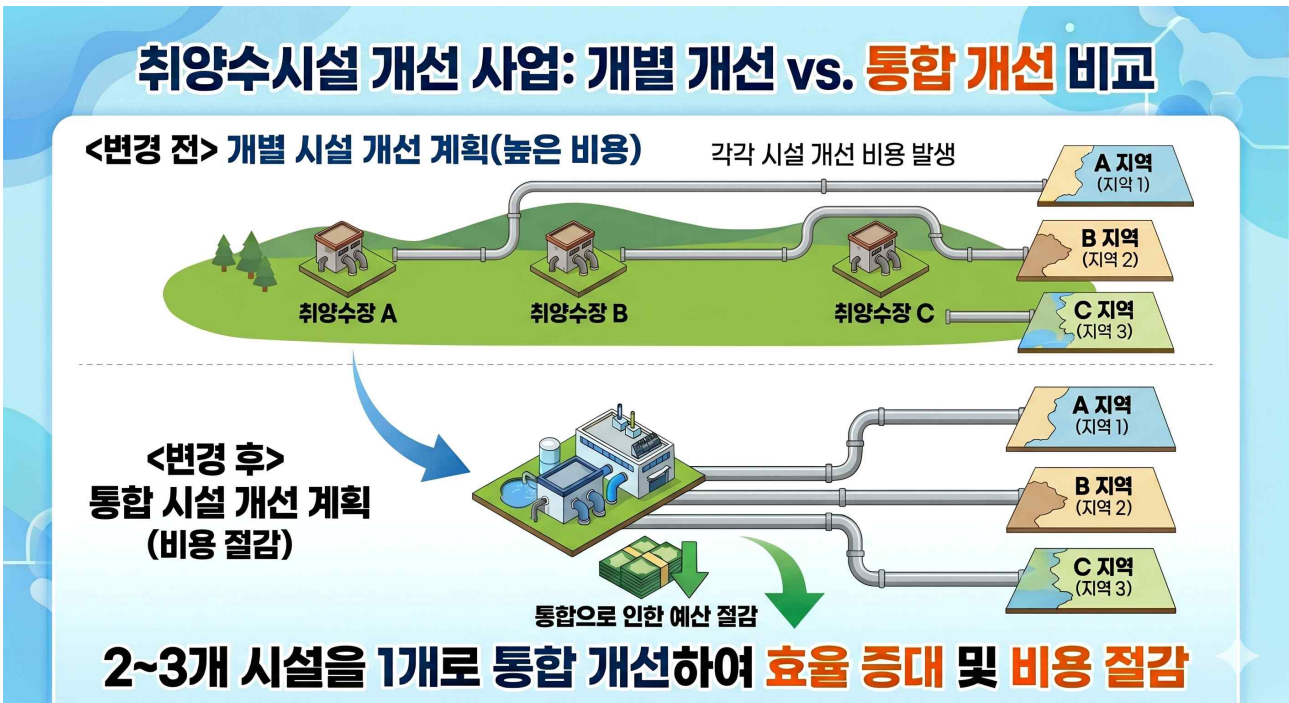
[기후부·농식품부 소관 취·양수장 개선사업 추진 현황]

구 분	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대 상	171	12	128	6	25
완 료	15	-	3	6	6
진행 중	156	12	125	-	19

이번 회의는 기후부 수자원정책관과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이 공동으로 주재하며, 양 부처 소관 취·양수장 시설개선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2개 이상의 취·양수장이 인접한 경우, 하나의 통합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여 가물막이 설치 등 하천공사를 최소화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을 적극 검토한다.

[취·양수장의 개별 개선과 통합 개선 비교 모식도]



또한, 기후부는 신속한 착공을 위해 하천점용허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부처는 취·양수장 개선 경험 및 새로운 기술 등을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취·양수장 시설개선은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물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양수장 시설개선은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그동안의 사업추진 경험을 공유하는 기술 지원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취·양수장 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 개최 계획.  
 2.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 개요(기후부).  
 3. 양수장 시설개선 사업 개요(농식품부).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정용 (044-201-7611)
		담당자	사무관	정성진 (044-201-7618)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책임자	과 장	김태형 (044-201-1871)
		담당자	서기관	최영기 (044-201-1876)

## 붙임 1

#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 개최 계획

###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6.4.30.(목) 14:00~15:30 / 정부세종청사 6-3동 710호
- (참 석 자) 기후부 수자원정책관·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공동 주재), 기후부 물관리정책과장, 농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장,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정책지원단,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정책지원단
- (주요내용)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비 절감방안
  - \* (기후부) 기후부 소관 취·양수장 시설개선 추진 현황
  - (농식품부) 농식품부 소관 양수장 시설개선 추진 현황
  - (수공·농공) 통합 취·양수장 건설 등 사업비 절감 방안, 기술 공유 세미나 개최 계획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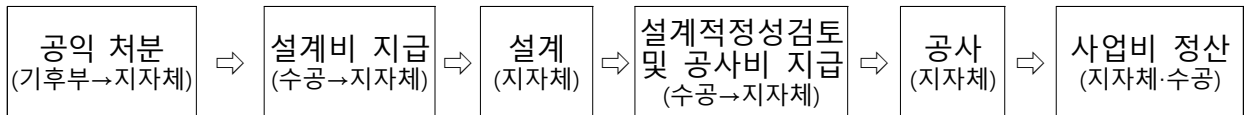
### □ 세부 일정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4:00~14:10	10'	· 인사 말씀	기후부 수자원정책관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14:10~14:25	20'	· (기후부) 취양수장 시설개선 추진 현황	기후부 물관리총괄과장
14:25~14:40	20'	· (농식품부) 양수장 시설개선 추진현황	농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장
14:40~15:20	40'	·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5:20~15:30	10'	· 마무리 말씀	기후부 수자원정책관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발생으로 하천수위가 저하되거나 녹조 발생에도 취·양수 제약이 없도록 시설을 개선해 안정적 물이용 기반 마련

- (사업개요) 지자체·수자원공사가 관리중인 취·양수 시설중 물이용 제약이 예상되는 시설의 취수구(위치조정, 신설·이설 등)를 개선중('21~)
  - (지원대상) 70개소(지자체 취·양수장 69개소, 수자원공사 취수장 1개소)
  - (시행주체) 기후부(총괄, 예산교부), 수공(사업비검토 등), 지자체(사업시행)
  - (시행방법) 위탁사업(수자원공사) ※ (근거) 하천법 제77조 및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

**【 취·양수장 개선 사업 추진절차(기후부 소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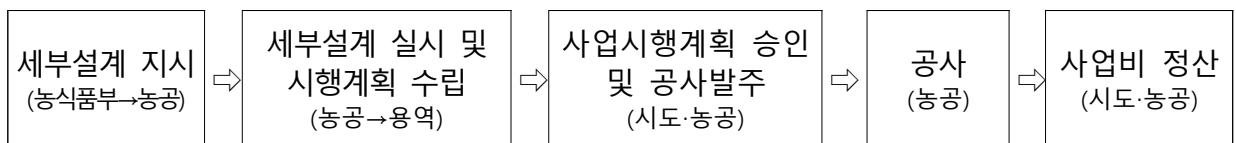
- (지원비율) 하천법(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국고 100%
  - 국가는 하천법 제70조에 따라 지자체에 시설개선을 명령(공익처분)하고, 제77조에 따라 처분에 따른 손실(개선비용)을 국고 100%로 지원 중

- (추진현황) '26.4월 기준 4개소 개선완료(세종 양화<sup>취</sup>, 합천 대부<sup>양</sup>·중적포<sup>양</sup>·외삼학<sup>양</sup>)
  - ('26년 예산) 470억원으로 48개소에 투자 중(한강 7, 낙동강 37, 영산강 4)
  - (이월 예산) 잔여 170억원, 11개소에 투자 중(낙동강 5, 영산강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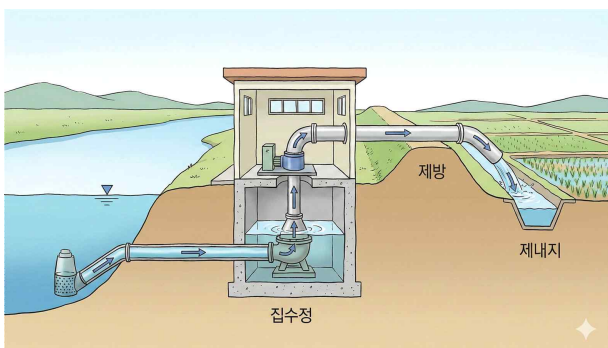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발생으로 하천수위가 낮아지는 경우에도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개선해 안정적 물이용 기반 마련

- (사업개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중인 양수장 시설 중 농업용수 공급에 제약이 예상되는 시설의 취수구(위치조정, 신설·이설 등)를 개선 중('21~)
  - (지원대상) 101개소(농어촌공사 관리 양수장 101개소)
  - (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비율) 국고 100%
  - (주요절차) 시설관리자(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고 양수장 시설개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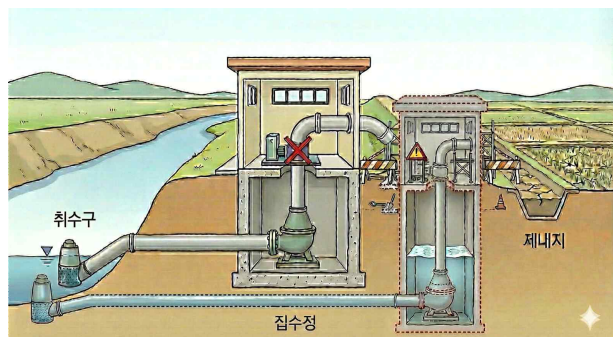
**【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추진절차 】**



- (추진현황) '26.4월 기준 11개소 시설개선 완료(금강 5, 영산강 6)
  - ('26년 예산) 246억원으로 90개소 추진 중



**【현재 양수장 운영 모식도】**



**【수위저하에 따른 양수장 개선 모식도】**